



제조업 중심의 취업자 증가세 지속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2년 11월 취업자 수는 2,941만 1,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3,000명 증가하였음.

- 고용률은 59.7%로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실업률은 2.8%로 전년동월대비 0.1%p 하락하는 등 주요 고용지표는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음.

■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음.

- 2012년 11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.0%(16만 4천 명) 증가하였으며 2012년 7월부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음.¹⁾
-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2011년 하반기 큰 폭의 취업자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 이외에도 기업들의 구인 수요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.
 - 최근 경기회복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동차, 기계장비, 정보통신업 등의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상용직 중심의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음.
-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등 사회서비스업에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자영업 증가폭 둔화와 함께 도소매 등 일부업종의 고용여건이 악화되며 전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음.²⁾

■ 기획재정부는 전반적인 고용 증가세는 지속되나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- 2011년 4/4분기 취업자 증가³⁾에 따른 기저효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12년 12월까지 3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됨.

(2012년 11월 고용동향, 통계청, 기획재정부 12/12)

1) 제조업 취업자 증감(만 명, 전년동월비): ('12.7)3.4 (8)8.0 (9)13.9 (10)14.4 (11)16.4

2)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(만 명, 전년동월비): ('12.7)39.4 (8)33.0 (9)46.6 (10)27.0 (11)17.6

3) 취업자 증감(전년동기비, 만 명): ('11.2/4)40.2 (3/4)36.3 (4/4)47.4